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를 위한

# 주일오후 가정예배

거룩한 문, 성문교회 성도를 위한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2020.05.24.주일

목 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 66:1~2)
신 앙 고 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p>“저 장미 꽃 위의 이슬(찬송가 442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li> <li>2.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li> <li>3.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li> </ol> <p>[후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p>
기 도	인도자(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p><b>시편 88장 14-18절</b></p> <p>14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15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16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7 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나를 에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18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p>
설 교	“흑암 같은 고통이 와도”
가 족 합 심 기 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가정되게 하옵소서.</li> <li>2. 주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 믿음의 세대계승 이루는 가정되게 하옵소서.</li> <li>3.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되게 하옵소서.</li> </ol>
주 기 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흑암 같은 고통이 와도

시편 88장 14~18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던 것을 성취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고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을 얻기를 바라며 삽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꼭 기대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바가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복잡한 문제들이 뒤엉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지만, 이를 놓쳐버리면 그 상실감에 넘어지기도 하고, 평생을 괴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과연 인생에 답이 있는지, 헤어나갈 구멍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지쳐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실이 우리 곁에 항상 곁에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기대,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확신을 믿음으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과연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의 본질이고 최선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The Stockdale Paradox)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은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혀서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7년 반 만에 석방이 되었던 미군 장교입니다. 그는 포로생활을 통해 낙관주의자들이 오히려 포로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곧 풀려나겠지’라고 기대하는 낙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이뤄지지 않자 더 크게 상심을 하고 결국은 포로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자들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않고,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에 적응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는 많은 시편들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에 어떠한 반전은 없고, 오로지 쓰러진 삶의 현실의 고백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듯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질병과의 싸움을 통해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던 두려움을 안고 있고, 고난의 세월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역설적 내용과 고백을 담아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도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받아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서서히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아직 과정 중에 있으며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의 토로한 뒤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인내하고 견뎌 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이야기를 심각하게 다 벌여놓고는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관객들은 모두 외면할 것은 자명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해피엔딩이라는 껍데기를 우리의 인생에 뒤집어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현실이고 그 현실은 딱하니 앞을 가로 막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찾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되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붙들고 현실을 견뎌내면,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축될 수 없고,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과정 어딘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새드엔딩과 같은 현실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아직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은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슬픈 인생의 한 순간을 거부하기 보다는 이것이 전부라고 단정 짓지도 않는 자세로 새롭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이 길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손길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시고 바라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하고 지친 모습을 아시며, 지친 우리의 어깨를 만져주시며 위로와 격려로 이 긴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가정예배 기도문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정의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가족 모두의 삶에 이러한 동행하시는 은혜와 막심치 않는 굳건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드엔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함으로 해피엔딩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